

물시장 2025년 1000조원… 원천기술이 국가 경쟁력



세계 각국은 물을 주제로 한 축제를 열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 등 돈이 되는 물산업 발전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사진은 국내 대표 물축제인 장흥 정남진 물축제 장면.

〈광주일보 자료사진〉

‘블루골드’ 물산업을 잡아라

<5> 세계 물 시장 선점하자



물산업은 대기업뿐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에게도 무한한 기회를 주고 있다. 사진은 진도의 조류발전소 모습.

돈이 되는 물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영국의 물전문리서치기관 GWI(global water intelligence)에 따르면 세계 물시장 규모는 지난 2010년 4828억 달러에서 오는 2025년 2배가량인 865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반도체나 조선 산업보다 큰 것이며, 세계 각국은 물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실제, 지난 1999년 70여개였던 세계 물 전문 기업은 최근 170여개로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상수도 시장이 2092억달러로 33.5%를 차지하고, 생수 12.2%, 수 처리 시설 5.8% 순이었다.

국내 수주액 세계 0.3% 불과 기술력 유망

스마트 상수도 기술 세계수준 성장 가능성

여수박람회서 ‘해수 담수화’ 기술력 확인

정부, 세계 100위권 기업 집중 육성키로

특히 2025년까지 시장 규모가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수담수화와 재이용수 분야는 각각 7.5%, 18.4%의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열린 여수세계박람회에서도 해수담수화 사업은 주요 전시 대상이었다. 전시장에 마련된 스카이라워 1층에 선보인 해수담수화 사업은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았다.

여수 앞바다의 물을 해수담수화 처리하는 전 과정을 선보였고,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물을 관람객들이 직접 맛을 보면서 물산업이 가진 성장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현재 물산업 선진국으로는 프랑스, 일본, 중국, 중동 등을 꼽을 수 있다. 프랑스는 19세기에 이미 민간기업이 상수도 서비스를 담당했고, 베를린, 몬테오 등 상수도 공급 업체가 100억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또 생수 시장은 한화로 5조7000억원에 달하는 등 물산업을 키워나가고 있다.

일본도 68조원대 물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물 기업들을 잇따라 인수하면서 세계 물 시장의 주도권을

을 잡아가고 있다.

세계 4~5위 수준의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도 59조원대 물 산업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 해수담수화 사업에 10조 1000억원을 투자해 하루 250만~300만톤의 해수를 담수로 생산하고 있다.

이 밖에 전체 면적의 85%에 이르는 지역에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동의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등지도 물산업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전체 인구 3억9000만명 중 27%는 안정적인 물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어 물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현재 전세계 물 산업 투자 규모의 절반 가량은 중동 지역에 몰려있다. 중동에서 석유를 사들였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중동에 먹는 물과 해수담수화, 하수처리 산업을 수출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국내 물산업도 활발하다. 지난 2010년 국내 물산업 수주액은 16억달러로 세계 물 시장의 0.3%를 차지하고 있다. 아직은 길음마 수준이지만 미래는 밝다. 수준 높은 기술력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세계 100위권에 드는 전문 물 기업을 8개 이상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천 기술 개발, 물 재이용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상수도 분야에 IT를 접목한 첨단 스마트 상수도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흡한 수준이지만 지속적인 투자 등이 이뤄진다면 세계 수준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또 향후 해수담수화 시장의 60%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역삼투압방식 기술도 개발 중이며, 세계에서 3번째로 16인치 분리막을 상용화해 호주에 수출하기도 했다.

물산업은 정부와 대기업의 전유물도 아니다.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항상 열려 있다는 점에서 물산업은 국내 산업발전과 직결된다.

습지대의 자연 정화 기능을 응용한 친환경 폐수 정화 시스템을 보유한 미국의 워털 워터 테크놀로지나 폐수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한 영국의 큐리온, 심층 지하수를 5단계 막 여과로 정수하는 우물 정수 시스템을 보유한 일본의 웰시 등은 모두 중소기업이다.

전남발전연구원 관계자는 “물은 한 국가의 필수적인 생존 자원이며, 막대한 부를 안겨주는 자산이다”면서 “광주·전남지역에서도 관심과 관련 투자가 이뤄져야 하며, 기업 육성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끝〉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세계 물축제

베네치아 등 年 100만 방문

지역 홍보·경제 효과 ‘쑥~’

세계 각국은 물을 주제로 한 축제를 열어 지역 경제 발전을 꾀하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을 무대로 열리는 이들 물축제는 관광객 소비 등의 직접적인 수익과 함께 지역을 알리는 등의 효과를 안겨주고 있다.

‘물의 도시’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대운하를 누비는 화려한 페레이드로 유명한 베네치아 곤돌라 축제를 열고 있다. 118개 섬이 400여개의 다리로 연결된 베네치아의 아름다운 풍경과 어우러진 이 축제는 매년 9월에 열린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마인 강 축제와 영국 런던의 템스 페스티벌도 유럽의 대표 물축제로 손꼽힌다. 마인 강 축제는 세계 60여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각종 공연과 음식 등을 선보이며, 템스 페스티벌에도 매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물축제도 이미 세계적인 행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태국의 송끄란 축제도 빼놓을 수 없는 물축제다. 새해맞이 행사로 열리는 이 축제는 관광객이 물세례를 받더라도 화를 내면 안 되는 것으로 더욱 유명해졌다. 축제 기간 주변 시장은 관광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고, 외국 관광객도 해마다 늘고 있다.

물이 풍부한 라오스의 빠마이 축제도 상대에게 물을 뿌리는 행사를 연다. 거리의 사람들에게 서로 물을 뿌리며 노는 이 축제에도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라오스의 음악과 춤, 맥주가 곁들여지며 전통 의상을 갖춰 입은 소수민족들의 행렬도 볼거리다.

미얀마의 텅안 축제와 홍콩의 웅선 축제도 물을 주제로 한 유명 행사다. 풍요와 평화를 기원하는 이들 축제에는 흥겨운 민속놀이가 펼쳐지며 관광객 100만명 이상이 몰려들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장흥 정남진 물축제가 비교적 성공한 행사다. 이 축제 또한 관람객 물싸움과 맨손 물고기 잡기, 장흥 한약초로 만든 천연 무지개 풀장에서 놀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관람객을 사로잡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90,000원